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주제 제25192호] 주제 105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압시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우리 총진군대오의 혁명적기세는 비상히 앙양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혁기적인 의지를 가지는 역사적의정표로 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발전의 중요한 단계마다 푸렷한 전략적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贯彻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언제나 배송을 떨쳐온 가장로속하고 세련된 당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불폐의 전투력을 파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여온 우리 당의 역사에는 당대회들이 새로운 전환, 일대 비약의 분수령들로 자랑스럽게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사적인 당대회들에서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전략적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贯彻으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배송의 한길로 이끄며 우리의 당대회들을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주시었다.

당의 영도밑에 당대회들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로선들을 철저히贯彻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이 땅우에는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당의 결심은 끝 실천이라는 철리를 신념으로 체득한 우리 당과 인민은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펼치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동격, 총대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는 눈부신 성과들을 큼직큼직하게 마련하고 온 나라에 토종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져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어 최악의 역경속에서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승리를 알아오시였다.

자력자강의 가치들이 그 누구도 감히 업두를 멎수없는 대답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으로 우리 혁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열어놓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이 나는 위대한 기적을 남고있다.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시작부터 세상을 들었다놓는 특대사변들과 자랑찬 경제건설성과들을 마련하여 계속혁신, 계속진전, 빠른공격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나는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보시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님원하시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찌개 옮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충돌기, 충발동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흥결사전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흥공격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대회를 맞으며 백두의 블은 혁명정신으로 만난시련을 겪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뻔이어 창조하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발표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절제없는 혁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주체의 태양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 대국의 영상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답게 더 홀륭히 꾸리고 결사보위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주만대에 걸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네원대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땅원으로 일찌개우자!

모든것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식, 김정일동지식대로!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여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는 혁명의 영원한 교파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찰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들어줘고나가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꿈꾸어 완수하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승리떨치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만들자!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밀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칼날 같은 기강을 세우자!

모든 당조직들을 당의 결정, 지시가 쪽쪽 내려가는 청춘세포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자!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당의 사상관찰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높이 떠받들자!

인민들의 믿음을 제일 귀중한 재부로 여기자!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짐작에 가득 세우자!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생활향상을!

당일군들은 고생을, 인민들에게는 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불폐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전당이 사람파의 사업에 주력하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끌어 세우자!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날리는 위대한 힘으로 당중앙의 두리에 천겁만겁의 성세를 쌓자!

청년들을 키우는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말자!

고지식하고 청렴절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혁명원리로, 혁명적당풍으로 간직하자!

세도와 판료주의, 부정부평형위와의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 놓지부를 짜자!

당위원회의 질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아!

당세포들은 당정책관찰의 결사대, 척후대가 되라!

전당에 당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자!

혁명적인 사상풍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사상을 풀어위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자!

사상사업을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전략적술적으로!

전당이 항일유격대식학습연습으로 풀풀게 하자!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키우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으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깊이 심어주자!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자!

사상의 보문을 열고 집중포화, 헌속포화, 명중포화를 틀어대라!

제국주의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라!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

당원전임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대중의 실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회관이 되라!

당원들은 인민을 위하여 죽을도 불사하겠다는 불변의 의지를 지니고 살며 투쟁하자!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결사전을 벌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토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더욱 철저히貫彻하자!

수소란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찌개우자!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주체조선의 위성으로 만리창공에 더 많이 쏘아올리라!

혁명적대고조에 부르는 당의 전투적호소에 기적파

위훈으로 회답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여!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펼쳐라!

전역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라!

화력발전설비보수자재를 최우선 보장하라!

대규모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으라!

백두산영웅창년3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당시 정해준 시간에 무조건 끝내라!

태양열, 풍력, 조수력, 지열에너지로 개발리용하라!

나라의 전력생산을 전기절약형으로!

전기절약투쟁을 전군증진운동으로 벌리자!

더 높은 석탄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라!

화력발전설비들로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보내주라!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동보호물자들을 최우선 보장하라!

전당, 전국, 전민이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자!

강철로 당을 끌어들자!

금속포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라!

나라의 전력생산을 전기절약형으로!

전기절약률을 더 높이 향상하라!

금속포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라!

나라의 전력생산을 전기절약형으로!

전기절약률을 더 높이 향상하라!

금속포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라!

나라의 전력생산을 전기절약형으로!

전기절약률을 더 높이 향상하라!

금속포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라!

나라의 전력생산을 전기절약형으로!

전기절약률을 더 높이 향상하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

## 1면에서 계속

록색건물,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을 더 많이 건설하라!  
원산지구를 도시형성의 본보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하라!

새로 일떠세우는 건축물들을 과학기술전당처럼!

건설에서 자기 지역과 지방의 특성을 적극 살려나가라!

건축물과 시설물의 정상운영, 정상판리, 정상보수를  
책임적으로 하라!

한g의 세 멘트, 한방울의 연유, 한로막의 강제도 극력  
절약하자!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라!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쥐고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  
으로 확립하라!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라!

기업소들에 두뇌전을 강력하게 꾸리라!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국사업이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라!

큰물과 왕가물, 태풍과 폭설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남김없이 세우라!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실현하라!

산림복구전투는 후대들과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국워업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라!

김정일에 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자!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라!

나무의 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온 나라에 퍼져라!

화초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생이 없게 하라!

강과 호수,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라!

우리 나라를 공해를 모르는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  
로 빛내여나가자!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것을 칠리로 새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주체적용력토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과 금속  
제작인종합식료공장, 평양제기공장처럼!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다.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사업으로  
풀어쥐고나가라!

수입병에 끔지부를 찢으라!

사회주의 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세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라!

나라의 전반적 교육을 새로운 과학적 대우에 올려  
세우자!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적, 전민적 사업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하라!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라!

전민과학기술인체화, 과학기술강국화를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자!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라!

우리 나라에 수재와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자!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제화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라!

치료에 방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라!

먼저리의로봉사체계를 더욱 완비하라!

우리의 원으로 효능높은 의약품을 더 많이!

제약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온 나라에 체육열 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체육을 과학화하라!

훈련장들마다에서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창조하라!

전망성있는 체육선수후예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로동과 국방에 훈련히  
준비하자!

민족체육과 군중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키라!

기자, 언론인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여!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만들자!

세세기 출판보도혁명, 문학에 술혁명을 일으키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태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라!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에서 방송포성의 위력을 남김  
없이 떨치라!

시대의 숨결,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전실하게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더 많이 만들라!

전세대 예술인들처럼 마지막 때 한방울까지 다 바쳐  
혁명에 이마지하라!

예술인들은 사상의 기수, 혁명의 척후대, 전군의  
나팔수가 되라!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통적인 창조기풍을 따라  
배우자!

모든 예술단체들을 백두의 용암처럼 품어번지는 청춘  
집단으로 만들라!

군중문화에 출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터마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울리게 하자!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자취하게 하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자!

민족웃음을 장려하고 민족묘리를 발전시키자!

노래를 불러도 민족의 정서가 넘쳐나는 노래를  
부르자!

전 사회적으로 도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자!

혁명선배들을 아끼고 존대하는 기풍을 세우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  
하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리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기관차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부강조국건설에서 기판사, 기마수가 되라!

과학기술로 지식경제 강국,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라!

최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더디고 울려서라!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라!

과학기술정보사업을 앞세우자!

과학기술과 생활을 밀착시키고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라!

선진과학기술이 물흐르듯 아래단위에 끊임없이 보급  
되자!

과학기술자료보급사업에서 신속성을 보장하라!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을  
형성하라!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다 바친다 해도 웃으며 끝까지  
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라!

주체의 신념과 민족적자존심으로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

당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보답하라!

제국주의자들의 첨단기술도전과 끊겨 풀지 못으로  
만들자!

과학자들을 우대해주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책임져  
으로 보장해 주자!

혁명적무장력은 당 제7차대회에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위대한 승리를 담보한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마쳐 싸우자!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자!

울해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오중흡7년대 청초  
행위운동을 탐기 하신 스무돐이 되는 듯깊은 해이다.

오중흡7년대 청호생원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김정은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라!

백두산혈통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이어 수령의  
근대화로 빛나는 혁명정신을 안고 청춘시절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빛내여라!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하라!

당을 앞장에서 밟드는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이  
되라!

언제나 골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백두의 칼바람에 뚫을 탈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에 내맡자!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 조국을 떠받드는 역할  
기동적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라!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마지하라!

청년들이 를 끌어 야 온 나라가 를 끌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한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대양기를  
펄펄 뛰날리며 청년들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촉직한 청년전위가  
되라!

언제나 골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청춘시절  
의 청춘을 품어라!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 조국을 떠받드는 역할  
기동적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라!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마지하라!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 조국을 떠받드는 역할  
기동적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봉투함!

조국보위도 사회주의전선도 우리가 다 말자!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라!

조선인민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버리라!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는 무쇠방패, 불은  
맹수가 되라!

제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단계에서  
짓뭉개버리라!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인 군민대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라!

군중협동작전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창조  
물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험용하게 일떠세우라!

당과 제도를 위한 투쟁기풍과 일본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이 결심하자면 우리는 한다!

혁명을 위하여 한몸 서슴없이 내대는 육탄정신을  
제질화하라!

전제간이 아니라 신념으로 당을 밟들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라!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동무는 만리마를 찾는 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게  
살며 투쟁하라!

단출!

10년을 1년으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이채로운 얼음조각풍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 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 영생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냉심과 도덕의 리실을 가지고 친행하야 합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이제 축제로 완성하며 김일성광장에 얼음조각 축제로 펼쳐졌다. 조선인민군창작사에서 창작한 6상의 얼음조

작품인 『불멸의 불 김정일회』, 『우리의 위성』,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 『화려의 절차대』, 『위대한 만대에 경의를』, 『행복의 무지개』이다.

얼음조각을 전시한 그 순간부터 끌어오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많아졌다.

불멸의 불 김정일회와 얼음으로

상승한 조각은 뜻깊은 광명성절의 흥미와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힘없는 충정의 마음인 양 불

제조에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향일혁명선열들의 신념의 글 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며 맥두의 혁명정신, 맥두의 칭송 정신을 더더욱 빠져 새기게 된다는 한 청년대학생의 이야기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숭례상을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며 전쟁 3년간 쌓아미가 되었던 어기 정양에서 일민의 행복이 풀 없이 풀려나는 오늘 회원한 얼

음조각풍경을 보니 전회의 그날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국의 화늘을 지켜 봐온 14명 유관자족용사들의 위훈비를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며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이 더욱 억수여진다는 한 조선인민군 군관의 걱정에 넘친 목소리는 혁명선열들의 놀이 어떻게 이어지는 가를 다시금 새겨보게 하였다.

정말 하나하나의 얼음조각들



개성시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박명숙동무의 가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보위 전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끊제해 조국의 방

선을 뛰어들자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자

식들에게 전쟁시기에 발휘된

인민군용웅천사들의 조국수호

거울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

을 떨어뜨려나가

야 합니다.』

개성시편의봉

사관리소로 동

자 박명숙동무

의 가정에는 부

부를 떨어뜨려나가

야 합니다.

그는 가정을 이룬 후에도 조

국의 방선을 지켜선 인민군군인

들을 위로하는 가풍을 세웠다.

군인들을 언제나 친형제, 친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미움을 썼다.

그가들의 지성이 어린 원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길러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마주한 정성섭로인은 어느 농촌마을에서나 흔히 만나 볼 수 있는 수수한 늙은이였다.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허리는 좀 구부정하며 손에는 장

말이 달아온다. 그는 전쟁의 끝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주는 남북 신성길 통로의 진

막과 헌신은 박명숙동무에게 있어서 큰 고우가 되고 의지가 되고 있다.

풀잎들이 이어지는 원군길을 함께 걸으며 안해에게 힘과 용기

를 주는 남북 신성길 통로의 진

막과 헌신은 박명숙동무에게 있어서 큰 고우가 되고 의지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3년이나 손에 흥을 잡고 조국을 지켜왔다.

어느덧 나이가 되어 년로보장 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인생이

죽을 먹으면 집안살림을 끊어

죽을 먹으면

